

민주 텃밭 이상 기류... 무소속 돌풍 부나

6·2 지방선거 이곳이 격전지

■ 나주시

민주당 후보 1명에 4명의 무소속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관심은 2차례 선거에서 무소속에 자리를 내준 민주당이 이번에는 설욕할 수 있을 지, 홍익점 주향득 후보가 남편인 신정훈 전 시장의 지지층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다.

민주당 후보로는 임성훈(주)위탁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가 선출돼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임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들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될 것으로 보고 시장직 탈환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물론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의 지원도 '물심양면'으로 받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민주당 바람몰이'를 일으키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주향득 후보와 이광형 전 부시장, 김대동 전 나주시장, 최동원 에이비에스 농어민방송 대표이사 등이 뛰고 있다. 주 후보는 3선을 노리다 대법원 형 확정

민주당 vs 무소속 단일화 변수

■ 나주시장 입자



임성훈(50) 민주당, 김대동(64) 무소속, 이광형(55) 무소속, 주향득(48) 무소속, 최동원(43) 무소속

으로 포기한 신 전 시장이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 특히 지역 농민단체 등의 지지가 강점이다.

김 전 시장도 그동안 밑바닥 표심을 다져 온 만큼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이 전 부시장도 부시장 재임시절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 대표는 나주시역 농업 조합장을 중심

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함에 따라 임성훈 민주당 후보로 표심이 결집하게 될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막판 무소속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양시

광양시장 선거는 무소속 이성용 현 광양시장과 한나라당 박태진 후보, 국민참여당 박형배 후보, 민주당 후보 간 4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는 무소속으로 말을 갈아탄 이 시장의 3선 여부. 민주당 깃발로 재선한 이 시장은 지난 3월12일 "일부 중앙정치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공천 권력을 이용하여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3선 도전' 이성용 대항마는

민주당에서는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 서종식 변호사, 남기호 전 전남도의원 3명 이 최종 경선에 나선 상태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부시장이 앞서고 있는데 가운데 간발의 차이로 서 변호사가 뒤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여론조사에서는 오랫동안 시민과 접촉을 해온 정 전 부시장, 당

원 여론조사에서는 우윤근 지역위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변호사가 각각 다소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한나라당 박 후보는 포스코 출신의 사업가이며, 참여당의 박 후보는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는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양시장 입자



박태진(43) 한나라당, 남기호(52) 민주당, 서종식(51) 민주당, 정현복(60) 민주당, 박형배(43) 국민참여당, 이성용(69) 무소속

'소신 vs 행정전문가' 한판승부

■ 강진군

강진군은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몇 안 되는 무소속 우세 지역이다.

황주홍 군수는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3선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반대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했다는 황 군수는 ▲투자유치와 스포츠마케팅 ▲2012년 청자엑스포 추진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등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 마무리, 신규투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확대 강화하고 정직, 친절, 화합 등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극대화, 강진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주홍 군수는 "군민의 변함없는 지지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힘이 난다"며 "강진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강진원 후보를 내세우며 한 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강 후보는 23년의 공직생활을 지난해 연

■ 강진군수 입자



강진원(50) 민주당, 황주홍(59) 무소속

말 청산하고 민주당에 입당,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따내는 지력을 보였다.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는 강 후보는 민주당 바람을 바탕으로 지역민심을 과고들며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3선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과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요구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 후보의 주장이다.

강 후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왕성할 때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며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일본 오키나와처럼 강진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성 vs 설욕' 2년만의 재대결

■ 장성군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이 현 군수와 민주당 김양수 후보가 2년 만에 다시 군수 자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일 전망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이 군수와 일제감치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김 후보는 지난 2008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 군수와 한바탕 접전 끝에 패배하는 아픔을 맛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4년 사이 두 차례나 무소속 '부부군수'에게 군수자리를 빼앗기면서 크게 체면을 구긴 탓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지역 내 민주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김 후보는 30년 공직 경력을 내세우고 공직 경험이 없는 이 군수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재·보선 패배 후 2년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조직을 확

■ 장성군수 입자



김양수(59) 민주당, 이 청(53) 무소속

대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온 것도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인 이 군수도 만만치 않다. 이 군수는 2년여 재임기간 동안 건설교통부 국장 출신인 남편 유 전 군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지원을 끌어오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군수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데다 장성의 주요 연령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지도 이 군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점도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DJ 고향' 유권자 선택은

■ 신안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무소속 박우람 군수가 버티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3명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경선과정을 거쳐 압축될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박 군수를 이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군수는 4년 동안의 섬 관광 활성화 및 천일염 산업화 등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점을 군민들이 평가해줄 것이라며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후보명입 제도의 거절했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DJ의 고향을 무소속에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강성종 전 전남도의원은 ▲천일염, 시금치와 새우젓의 명품브랜드화 ▲섬별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는 ▲농·수산 주식회사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어르신 안부살피기 정책 등을 내세워 표발을 다지고 있다.

박석배 국회 동북아공동체 연구회장은 ▲그림 홈 활성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창립 등의 정책을 실현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지기반을 닦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신안군수 입자



강성종(62) 민주당, 남상창(59) 민주당, 박석배(47) 민주당, 박우람(56) 무소속

천일염 등 명품브랜드 육성 1등인 1복시간 간접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무료급식 확대

그림 홈 조성 가칭 신안미래재단 창립

공약 제시하지 않고 있음

